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9월 12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9월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박흥신 님과 이성림 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박흥신 님은 황일진 회원의 추천으로 연구원의 식구가 되셨습니다. 서울에서 전기화학장비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며 역사와 고전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수도권 회원 모임에서 자주 뵈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성림 님은 박재숙 회원의 추천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전주에서 건축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연구원 근처에 살고 계시기에 자주 자주 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학계와 연구자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이 속속 연구원으로 발걸음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바라보는 시선과 가야할 행동 반경을 넓히려는 시대의 요구라 생각하고 또 오래 오래 뵈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 수도권 2차 문화답사 안내 ★

- 참가대상 : 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10명 이상 참가 신청시 진행)
- 일 정 : 2023. 10. 02(토) 15:00~21:00
- 장 소 :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경동시장 등
- 행사문의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사무국(063-286-3005), 박애스더 간사(010-3408-0128)
- 세부일정

날짜	시간	내용
10월 7일 (토요일)	14:30 ~ 15:00	출발지 집결 (한솔동의보감타워 앞 광장)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구)
	15:00 ~ 16:00	서울약령시 답사
	16:00 ~ 17:00	한의약박물관 견학
	17:00 ~ 17:30	구) 경동극장 방문
	17:30 ~ 21:00	저녁 식사 및 뒤풀이

※ 확정되는 세부 일정은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 (063-286-3005)나 박애스더 행정간사(010-3408-0128)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역사속의 오늘

인천에 뛰어난 제주도 해병대원들 - 1950. 9. 15.



지난 여름 물난리에 실종된 주민을 찾기 위해 투입되었던 해병대원의 속절없는 죽음과 그 진상규명의 여파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에 창설되었다. 총 380명의 해군 출신 장정들이 해병대의 초석을 다졌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인천상륙작전의 선봉에서 전장을 누볐다.

이 작전은 함정 261척, 병력 7만 5천명이 동원된 대규모 상륙작전이었다. 한국군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15척의 한국 해군 함정과 함께 해병대가 주력이었다. 특히 해병 3기와 4기가 한국 해병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의 전원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948년 4월 3일 일어난 항쟁의 여파가 어떤 식으로 제주도를 휩쓸었는지에 따로 할 얘기가 없을 것이다. 수십만 명의 목숨이 죽어나간 세월이 여전히 독살스러웠던 무렵 1949년 12월 한국 해병대가 제주도로 온다. 공비 토벌과 병행해서 해병대 양성소로서 제주도를 점찍은 까닭이었다. 그런데 6개월 뒤 전쟁이 터진다.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제주도민들에게 해병 입대를 권유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4.3이었다. 혈서를 쓰며 입대한 사람을 비롯하여 열혈지원자 가운데에는 4.3의 봉기 세력과 연관된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나이가 어린 중학생들은 꼭 군대에 가겠노라고 고집을 부렸고 형제들이 몽땅 입대해 버리자 어머니가 목을 놓아 우는 광경도 흔한 일이었다 한다. 그 때 입대한 해병 3기 1,661명과 4기 1,277명이 제주 출신이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 앞바다에는 한국어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제주도 표준어로 서로 안부를 나누며 M1 소총을 굳게 쥐고 있던 사람들이 수천 명 몰려들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고향의 식솔들에게 국방군 가족이라는 우산을 씌워주고자 했던 제주도 출신의 해병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용기에 감복하지만 그 용기의 원천이 슬픔에 바탕한 사연임을 알게 된 다음 숙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이 글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머리말이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전장의 선봉에 서야했던 제주도 출신 해병대원들은 인천상륙작전 73년을 맞이한 오늘 해병대가 마주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